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 2026년 5월 20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 주요 기사내용 | | 해당부서 | 보도매체 |
|---|---|---|---|
| ○ | ‘귤향’ 짙은 선율이 가득 울려퍼지는 서귀포서의 주말-7면 | 기술지원조정과 | 제주일보 |
| ○ | 제주도농업기술원 새호품 현장평가회-9면 | 원예작물과 | 제민일보 |
| ○ | 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 일손돕기-9면 | 기술지원조정과 | 제민일보 |
| ○ | 한농연, 마늘 수확 일손돕기-12면 | 기술지원조정과 | 제주매일 |
| ○ | 동부농업기술센터 기계파종 시연회-9면 | 동부농업기술센터 | 제민일보 |
| ○ | 농업·농촌 소식-13면 | 기술지원조정과 | 삼다일보 |
| ○ | “5월 제주 맞나” 30도에 온열질환 속출-1면 | - | 제민일보 |
| ○ | 햇마늘 막바지 수확 한창-1면 | - | 제민일보 |
| ○ | 쪽파 수확 한창-3면 | - | 삼다일보 |
| ○ | 지난해 상당수 농가 피해…관련 기관은 관심 밖-5면 | - | 한라일보 |
| ○ | “감귤 좋은값 받으려면 역발상을” -6면 | - | 한라일보 |
| ○ | 옥수수 솎아주기 구슬땀-6면 | - | 한라일보 |

(제주일보: 2026년 5월 20일)

○ ‘귤향’ 짙은 선율이 가득 울려퍼지는 서귀포서의 주말-7면

# ‘귤향’ 짙은 선율이 가득 울려퍼지는 서귀포서의 주말

바람난장(IX) 예술이 흐르는 길

### (9) ‘2026 귤꽃 계절 소풍’서의 한때(上)

지난 9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사전 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귤꽃 계절 소풍’이 열리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바람난장이 펼쳐졌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재배돼 온 감귤은 조선 시대에는 왕실에서만 접할 수 있는 희귀한 과일이자 민간에서는 약재로 쓰인 귀한 작물이었다. 감귤이 대접받던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도 전해져 온다. 성균관 유생에게 감귤을 하사하는 과거시험인 황감제를 보더라도 감귤이 금귤 대접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왕들의 감귤 사랑을 보면 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향나무의 향기는 코에만 향기롭고 기름진 고기는 입에만 달구나. 가장 사랑스러운 동정의 귤은 코에도 향기롭고 입에도 달구나’라는 친필 시구를 내리기도 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감귤 대접이 다른 만큼 조선시대에는 감귤이 왕실 진상품이었다. 그런데 감귤 진상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풍년일 때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상납을 하게 하니, 백성들은 감귤 농사를 안 하려고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제주 감귤 농사는 달라졌다. 대학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감귤 농사는 호황을 누렸다.

50년 전,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 시절에 부모님은 조천읍 오름 밭 지경에서 귤 농사를 일찍 시작하셨다. 그 이유로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며 교육하며 많은 밭이 귤밭으로 변했고 우리 밭 주위는 모두 귤밭이 됐다. 학교를 마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과수원으로 걸어서 갔던 적도 많다. 과수원에는 귤이 익기 전부터 할 일이 많았다. 병충해를 막느라 농약을 칠 때는 농약 치는 후수를 잡아주기도 하고 농약 통도 저어주는 작은 일이지만 없으면 불편하고 사람을 더 데려다 쓰는 일은 힘들기에 자식들이 일손을 보태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다 과수원 수확 철엔 작은 일손도 보태어 귤 따는 일과 따놓은 귤을 창고까지 옮기는 일을 아들딸 가리지 않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귤 철엔 용돈을 받거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사주셨다. 그러나 학교 일이 바빠지면서 오롯이 부모님들 일이 됐고, 이웃 간에 품앗이를 하며 서로의 일들을 도왔다.

**“향기롭고 달아” 극진히 대접받아온 ‘제주 감귤’ 향 느끼며**

**소풍의 계절, 이웃들과 흥겨운 바람난장 공연 한바탕**

귤밭에 가면 지금도 귤꽃 향기가 코끝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향긋함이 아련하다. 제주에서 귤 농사하는 일은 당연한 것 같아도 부모님 세대에서 자식으로 오면서 농사 대신 사회 발전에 맞게 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는 자식이 많아지고, 땅들은 도로와 건물들이 생겨나면서 개발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하면 귤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귤꽃 계절 소풍에는 귤꽃 길 걷기, 하귤청 담기, 귤꽃 화전 만들기, 귤꽃 차 시음, 소원나무 꾸미기가 부스마다 이뤄졌고, 바람난장 팀은 주 무대에서 멋진 무대를 만들었다.

바람난장 첫 순서로 김익수 성악가와 이마리아 님이 ‘축배의 노래’와 ‘오 솔레미오’로 무대를 열어주셨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나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우렁차서 그곳에 와 있는 관객들이 크게 성원해 주셨다. 귤꽃 길 걷기는 세 차례로 나누어 걸었고 걷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휴식을 취하며 바람난장의 무대를 같이 하며 즐겼다.

이어지는 무대로 문지윤 첼리스트의 첼로 연주는 꿈속 같은 몽환의 분위기를 줬고 보랏빛 귀여운 드레스가 돋보였다.

첼로 연주가 끝나자 박연술 무용가의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이어졌다.

나무 아래에서 박연술 무용가의 춤선이 시선을 끌었다. 하얀 귤꽃을 상징하는 하얀 천을 흔들며 향기를 퍼뜨렸다. 공연 중에 관객석에서 나온 아기에게 귤꽃 향기를 나누어 줬다.

이어지는 무대는 바람난장 김정희 시인이 즉석에서 귤꽃 시를 지어 낭송했다.

**귤꽃**

김정희

ᄇᆞ름이 실엉 온 귤꽃 향
우리 어멍 이신 집이 바로 알인게
벵딜이 ᄂᆞ려와 앗안
살림살이 늘려주던
그 밧은 하영헌 벵누리
고장 홍글멍 가는 저디 산자락 ᄇᆞ름
와리멍 봄 심으레 튀엉가단
귤꽃내음 털어추왐서
날 좋안 흥이 나는
귤꽃 향 폴앙 들어간 밧은
또난 시상인게
눈 부시게 피언
자락자락 피언 취ᄒᆞ는 오월
머들 우티 윤노리낭도 지키부덴
희영헌 고장 늘어지게 피엇서
귤밧디 꽃송이 와랑와랑 피엄저

제주어시로 바뀌 낭송해 시낭송이 끝나고 관객에게 잘 알아 들으셨는지 확인했다. 몇 분이 제주어 잘 들었다고 답해줬다.

제주 사람이다. 제주 사람들에게 농사는 귤 농사였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던 시절, 제주라는 섬 지역에서 바람 많은 제주 사람들의 농사는 조 보리 콩 같은 농작물이었고 바다 밭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귤 농사를 하면서 많이 변했다. 제주는 따뜻한 남쪽 나라 섬이었기에 가능했다.

제주 곳곳이 귤꽃 향기를 가득 풍기는 동안 제주는 살기 좋은 곳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주로 들어오고 있다.

▲글=김정희(시인, 아동문학가) ▲시낭송=김정희 ▲색소폰=홍택균 ▲첼로=문지윤 ▲춤=박연술 ▲대금=신은숙 ▲장구=만효경 ▲노래=김익수, 이마리아, 이천희, 최희수 ▲사진=김태현 ▲그림=이현형 ▲총감독=김정희

김익수 성악가와 이마리아 님의 듀엣 무대.

문지윤 첼리스트의 연주에 맞춰 박연술 무용가가 춤을 선보였다.

김정희 시인이 즉흥에서 지은

5. 20.
제주일보 7

(제민일보: 2026년 5월 20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새호품 현장평가회-9면

# 제주도농업기술원 새호품 현장평가회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안덕면 동광리 실증포장에서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실증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새호품 맥주보리의 생육 및 수량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5. 20.
제민일보 9

(제민일보: 2026년 5월 20일)

○ 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 일손돕기-9면

# 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 일손돕기

㈔한국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회장 송응준)는 19일 조천읍 일원에서 회원 및 경기도 국제학교 학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번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5. 20.
제민일보 9

(제주매일: 2026년 5월 20일)

○ 한농연, 마늘 수확 일손돕기-12면

# 한농연, 마늘 수확 일손돕기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송응준)은 19일 제주시 조천읍 일원에서 마늘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5. 20.
제주매일 12

(제민일보: 2026년 5월 20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기계파종 시연회-9면

# 동부농업기술센터 기계파종 시연회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18일 센터 실증포장에서 동부지역 참깨 재배농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득작목 육성 참깨 기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하니올' 품종을 활용한 참깨 기계파종 방법을 소개하고 기계파종 과정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5. 20.
제민일보 9

(삼다일보: 2026년 5월 20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 농업·농촌 소식

###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 노지감귤

△여름비료 시용=5월 하순~6월 상순, 1년동안 주는 양의 질소 20%, 칼리 40%

△병해충 방제=꽃 70% 정도 낙화 시 잿빛곰팡이병 적용 약제 살포

▲만감류

△온도 관리=낮 최고 온도 28도 이하 유지

△물 관리=(종화기~1차 생리낙과) 5~7일 간격 20t/10a 관수

△병해충 방제=총채벌레·진딧물 등 예찰 후 조기 방제, 종화기 잿빛곰팡이병 적용약제 1~2회 살포하며 시설 내 환기 철저

▲마늘

△수확=잎이 50~75%정도 말랐을 때 뽑아 3일 이상 말린 후 줄기절단-주아용은 구마늘보다 3~5일 늦게 수확, 주아가 달린 채 말린 후 줄기절단 및 주아 채취

△종구 저장=바람이 잘 통하며 습하지 않고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저장

▲초당옥수수

△물 관리=이삭수염 출현 후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 관리 철저

△병해충 관리=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나방류 유충 발생 확인되면 해뜨기 전에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루 살포

▲맥류

△병해충 방제=출수~개화기에 붉은곰팡이병 적용 약제 3회 이내 살포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표준시비=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시비처방서 발급 방법

5. 20.
삼다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5월 20일)

○ “5월 제주 맞나” 30도에 온열질환 속출-1면

# “5월 제주 맞나” 30도에 온열질환 속출

**평년보다 높은 이상고온 현상**

**한 달 빨라진 역대급 무더위**

**초기 가뭄 가능성 농가 비상**

**농작물 피해 우려 대책 점검**

**20일부터 다소 누그러질 전망**

제주에서 5월 중순 이례적인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평년보다 4~6도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자 제주도도 농작물 피해와 초기 가뭄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에 나섰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일부 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첫 30도 돌파 시점도 지난해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발생 시점 역시 지난해보다 나흘 앞당겨졌다.

지난해 5월의 경우, 상층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상순 평균 기온이 역대 최저 5위를 기록할 만큼 봄철 초반에는 이례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이후 6월 중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6월 중순에 접어들어서야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돌파했다.

반면 올해는 5월 중순이 채 지나기도 전에 최고기온이 30도를 돌파하는 등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찾아왔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김녕은 지난 18일 30.4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제주 지역 첫 30도를 나타냈다. 같은 날 한림은 29.2도, 조천읍 대흘은 28.4도를 기록했다.

앞서 17일에도 성산 수산이 28.5도까지 오른 데 이어 서귀포 강정이 28.4도, 상예가 28.3도를 기록하는 등 제주 전역에서 초여름 수준의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4~6도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기상학적으로 평년보다 4~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경우 대중이 체감하는 계절이 한 달 이상 앞당겨지는 ‘이른 초여름 날씨’ 또는 ‘이상고온’으로 분류된다.

실제 온열질환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47분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는 50대 여성이 3시간가량 밭일을 하던 중 저림과 마비 증세를 호소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17일 오후 2시20분께는 제주시 한 체육관에서 운동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어지럼증과 고체온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된 뒤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다.

제주도 또한 이어지는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자 여름철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9일 기준 공식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없지만, 고온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생육 부진과 병해충 증가, 초기 가뭄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더위는 20일부터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일 오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비는 21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30~80㎜, 남부중산간 100㎜ 이상, 산지 120㎜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 됐다. 조병관 기자

5. 20.
제민일보 1

## (제민일보: 2026년 5월 20일)

○ 햇마늘 막바지 수확 한창-1면

**햇마늘 막바지 수확 한창** 19일 대정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제철을 맞은 마늘을 수확하며 분주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수확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알찬 햇마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봉철 기자

## (삼다일보: 2026년 5월 20일)

○ 쪽파 수확 한창-3면

**쪽파 수확 한창** 19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쪽파농가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

(한라일보: 2026년 5월 20일)

○ 지난해 상당수 농가 피해…관련 기관은 관심 밖-5면

한라포커스 열과 피해 한라봉농가의 서러움

# 지난해 상당수 농가 피해… 관련 기관은 관심 밖

**지난해 한라봉 수확량 중 20~30% 열과 피해 추정**
**올해도 피해 우려… 현황 파악·대책 마련은 겉돌아**
**"자발적 실태 조사…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본격 여름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국적으로 30℃를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 만감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과 피해(열매 터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가 위기 대응 방안 수립이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차기 도정 리더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7월 제주 지역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열과 피해가 또다시 우려된다.

지난 2년간 이상고온 현상으로 열과 피해가 급증한 레드향의 경우 최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모두에 적용될 수 있게 돼 한숨 놓게 됐다. 그러나 같은 [illegible]의 경우 지난해 열과 피해가 갑작스럽게 늘었음에도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실제 제주 감귤 관련 기관에서는 한라봉 열과 피해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한라봉은 원래 열과 피해가 없는 작물이어서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한라봉은 수확 감소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레드향의 경우 껍질이 얇아 열과 피해가 많은 작물이기에 그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라봉은 열과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어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30년 동안 한라봉 농사를 지어 온 고문삼 써니트연구회장은 "그동안 열과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지만 작년은 달랐다. 우리 연구회에 80농가 정도 가입돼 있는데 전체 수확량의 20~30% 정도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계속 더워질텐데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라봉 열과 피해를 입은 강모씨는 "도청과 농업기술원 등에 지원 방안을 문의해봤지만 농가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만 받고 맥이 빠졌다"며 "벌써부터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농사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도내 전체 감귤 재배 면적 중 만감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제주농업통계시스템을 보면, 만감류 재배면적은 2000년 665ha에서 2024년 4279ha로 544% 증가했으며, 생산량도 2000년 1만617t에서 2024년 11만3809t으로 972% 증가했다.

제주 감귤의 품종 구조가 만감류 비중 확대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열과 피해에 대한 대책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제주도는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시설과수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사업과 온도저감 시설 확대, 레드향 열과 발생요인과 저감 재배방법 연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좀 더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레드향 열과 피해 문제를 강력 제기했던 강충룡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사과, 배, 복숭아 가입률은 거의 100%이지만, 2021년도 감귤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 수준에 그친다"며 "보험을 들어도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보상 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나온 공약에서는 농작물 재해 보험 확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문삼 써니트연구회장은 "당국이 나서질 않으니 우리 스스로가 실태조사도 하려고 한다"며 "정치권에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좀 더 앞장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미현기자

5. 20. 한라일보 5

(한라일보: 2026년 5월 20일)

○ “감귤 좋은값 받으려면 역발상을” -6면

# “감귤 좋은값 받으려면 역발상을”

## 높은 경매가 후 농가·유통업체 출하 집중돼 가격 하락

## 출하 2~3일 중단·축소나 출하량 적은 법인 선택 제안

### 제주감귤지도, 하우스감귤 경매 데이터 23만 건 분석

제주 감귤 유통 생태계를 데이터화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제주감귤지도는 경매가가 높은 판매법인으로 출하가 몰리는 집단행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적 패턴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5년 5~10월 전국 67개 판매법인에서 경매된 제주 하우스 감귤 경매 데이터 23만여 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로, ‘고가격 이벤트 발생 이후 거래량과 가격간 시차 반응’이 나타났다. 특정 판매법인에서 높은 경매가가 발생하면 농가와 유통업체의 출하가 집중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판매법인 가운데 서울·수도권 21개 법인과 비수도권 46개 법인에서 오늘의 ‘좋은 정보’가 내일의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거래량이 많은 서울·수도권 6개 법인과 광주·부산·대구 등 지역 8개 업체 등 총 16개 판매법인에서는 이른바 ‘경매시세 머피의 법칙’이 더 자주 발생했다는 게 제주감귤지도의 설명이다.

제주감귤지도는 이 같은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내가 출하하면 하필 경매시세가 떨어지는’ 머피의 법칙을 피하려면 역발상 출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고가격이 형성된 판매법인으로의 출하를 2~3일간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같은 도매시장 내 상대적으로 출하량이 적은 다른 판매법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지역 도매시장의 출하량과 시세를 비교해 공급 압력이 낮은 법인으로 출하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제주감귤지도는 2025년 8월 제주시에서 창업한 애그테크(AgTech) 스타트업이다. 제주로 귀농한 아버지의 감귤 유통 현장을 지켜본 대학생 형제가 운영하는 앱으로, 제주에서 출하되는 감귤·만감류 등 모든 품종의 전국 판매법인별 경매가와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5. 20.
한라일보 6

## (한라일보: 2026년 5월 20일)

○ 옥수수 솎아주기 구슬땀-6면

**옥수수 솎아주기 구슬땀** 19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옥수수 열매솎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